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다이이치생명 주식시장 상장 관심 고조

- 일본의 2위 생명보험회사인 다이이치생명(第一生命保險)의 도쿄증시 상장을 앞두고 공모 규모 등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.
  - 다이이치생명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및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일본 주요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4월 1일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음.
  - 상장 시 시가총액은 약 1조 5천억엔(약 19조 4천억원 상당), 발행 주식수와 공모가는 각각 1,000만주와 주당 15만엔이 될 것으로 알려짐.
  
- 다이이치생명 상장이 주식시장 및 개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, 일각에서는 개인 주주들의 대량 환매에 따른 주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음.
  - 보험 계약자가 주주가 되어야 하는 상호회사 특성상 시가총액 대부분이 계약자들에게 주식 또는 현금으로 분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, 신규 주식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주식시장 및 개인 소비 활성화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.
  - 다이이치생명에 따르면, 보험 계약자 821만명 중 약 15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주식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 주주 수로는 NTT의 103만명을 제치고 일본 최대 개인 주주 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 -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다이이치생명의 주식을 할당받은 개인 주주 상당수가 현금화를 위해 상장 후 곧바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, 개인 주주들의 대량 매도가 현실화 될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체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침체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.
  - 또한 상장 첫날 거래가 몰릴 경우 시스템 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도쿄 증권거래소는 최근 다이이치생명 주식의 첫날에 한해 매수 및 매도 횟수를 각각 1회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다이이치생명 상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.

(마아니치신문, 2/8, FujiSankei Business I, 2/28)